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 3월 6일: 농협 중앙회
젓소개량부 방문 및 양돈,
양봉, 양륙협회 방문

▷ 3월 7일: 강원 한우개
량동우회 참석

▷ 3월 8일: 본회 전북지역 이사, 대의원 방문

▷ 3월 9일: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
론회 참석

▷ 3월 10일: 한우핵균육종연구 임원면담

▷ 3월 13일: 월간한우 인터뷰

▷ 3월 14일: (충북청원 상수허브랜드) 본회
유우 이사들과 오찬

▷ 3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 위원회 참석

제16대 조병대회장 취임식



지난 3월 2일 본회 지하 회의실에서 제16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개량 농가의 지원사업
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유
대관계를 통해 핵심적 추진사항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을 세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계기를 마
련하겠다고 밝히며, 양축농가의 손발이 되어 직
원들과 열심히 땀을 흘릴 것을 다짐하였다.

장기대책수립을 위한 전략기획팀 운영



본회(회장 조병대)는 업무의 효율화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 강화로 본회의 위상을 올리고 협
회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의 추진 및 자원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기획팀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업
무의 효율화 방안, 선진국의 시스템 벤치마킹,
개체식별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농가 서비스
개선방안, 후 업무개선 및 새로운 사업방안(5년)
등 본회 세부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 업무의 효율
화와 농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시대
적인 관습과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
고, 새로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다.

본회 전략기획팀은 김윤식 부장을 팀장으로 각 부서 부장·팀장급중 1인으로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운영된다.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2006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회장 조옥향)는 지난 15일 상오 11시 30분 종축개량협회 임원실에서 금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2월말 현재 미입금액을 제외한 통장잔액이 70만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해야 할 금액이 2천2백70만원에 달하여 우선 1천2백만원을 단기 차입기로 했다.

또 지난해 32개 검정회에서 중앙회 구매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환원키로 한 1천3백만원은 오는 6월 초 검정회장단 단합대회를 열고 나서 7월에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이날 기타사항으로는 지난달 28일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중앙회 업무도 바쁜 가운데 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장직까지 수행하면 자칫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어 두 직함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조옥향 회장은 “여성분과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중앙회 업무를 소홀히 한 일이 없다”며 “앞으로 임기 중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한다. 이에 전 임원들도 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기로 결의했다.

충북 한우개량농기동우회 정기회의

2006년 3월21일 충북 농업기술원내 농업인 회관에서 충북 개량선도농가 경영주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2005년도 충북한우개량농기동우회의 활동에 대한 회원간 전반적인 토의와 본회에서 개발한 한우관리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2006년도 동우회 향후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 동우회 회장인 김재하(충북 청원)씨는 2005년도에 본 동우회의 활동이 다소 부족한 만큼 보다 의욕적인 한우개량관련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여 본 동우회 회원들이 한우개량의 의욕에 많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2006년 한해를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북 한우개량농기동우회의 간사인 정용호(한우개량부)부장은 본 동우회가 충북지역 개량선도농가집단으로 하루빨리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소식

우성사료, 비육우 신제품 〈에코프랜드, Eco-Friend〉출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2월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영업사원을 비롯한 마케팅 조직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비육우 신제품 출시회의를 가졌다.

우성 연구농장(충남 홍성)의 자체 시험과 사양가 사양시험을 거쳐 검증을 마치고 새롭게 선보이게 될 비육우 신제품은 안성지역 L농장에서 홀스타인 입식우 20마리에 30일간 급여한 결과, 한겨울 혹한기 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50.1kg이 증체되어 연구 담당자와 시험농가를 놀라게 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제품을 시험단계에서 직접 체험한 L목장 사장님은 입식하면서 추운겨울이라 설사와 호흡기를 염려하였는데, 하루 평균 6kg 이상 먹어주고 뒤탈이 없으니 잘 크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제품을 직접 설계한 반추동물 연구원 양운목 박사는 에코라인의 제품설계 원리를 한마디로 Total Nutrition으로 표현하였으며, 동양의학의 군신좌사(君臣佐使) - 주석1)의 원리를 입식우의 먹거리에도 적용한 에코프랜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1)항생제 대체물질의 종합적인 처방으로 항병력을 강화, 강건한 송아지를 만든다.

항생제 잔류문제와 더불어 항생제 내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였다.

2)양질의 섬유질원을 대폭 강화하여 반추위 발효환경을 조기에 안정시킴은 물론

3)원료의 형태가 Multi-Particle화 되어 유효 반추력을 증가시켜 경이로운 섭취량을 보여주며 영양소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켜 일당증체를 향상시킨다.

4)여기에 반추위 발효환경안정제를 복합다중 처방하여 대사성질환을 감소시키고 소화력을 증진시킨다.

이번 신제품의 총괄기획을 맡은 손근남 이사(축우 PM)는 에코프랜드의 〈에코-Echo, 메아리〉에서 전하는 메세지처럼 고객에게 수익으로 보답함으로써 미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분노와 시름에 찬 한육우 사육 농가들에게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땅의 육우 송아지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

여 화(anger)덩어리가 없는 무항생제 친환경 식품을 소비자의 식탁에 제공하는 그날까지 에코프랜드의 메아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서비스와 판촉에 올인 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내용문의: 손근남 이사 (축우PM) 018-419-1193

농림부, 현안대응 체제 재정비

농림부는 23일(목)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진청·산림청, 한국농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간부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기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맞춤형농정·우수브랜드육성 등 금년도에 추진할 농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정 기관간 농정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농림부와 농업인단체 사이에 간담회·워크숍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는 있었으나, 이처럼 각 농정기관의 간부들이 모두 모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농정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오늘 한미 FTA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총력 대응하기 위하여 차관주재로 한미 FTA 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협상반, 국내대책반, 종합대책반으로 구성되며, 농림부 1급이 반장을 맡고 있다.

협상반에서는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 원산

지협상, SPS 협상 등 협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직제개편으로 3.28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2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내대책반은 식량, 축산, 과수·채소 분야의 품목별 영향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대책반은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을 계기로 농업인 단체 협의 및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 FTA 대책반은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과정에서 농경연의 자문을 받고 농업인 단체의 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농림부는 한미 FTA 대책반 구성을 계기로 한미 FTA에 대응한 범정부적인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보다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총회-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박차

2006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규모가 농가거출금 64억6천만원에 정부지원금 40억원, 이익잉여금 12억3천5백만원을 합해 총 115억9천5백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우자조금 대의원 총회(의장 이부총)가 지난 16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2005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BSE 발병우 확인, 한미FTA 체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부지원금이 40억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한 답변과 한우자조금을

홍보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미 FTA 반대 집회 지원 등 농가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지원하자는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남호경위원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지원금 40억원은 유동적인 것으로 한우산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추가지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조금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아 농림부에 관련법규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대의원은 현 유통투명화감시단 활동이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무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자조금 사업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한우판매점 인증제.

관리위는 총 1억1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해 지난해 발족한 한우유통투명화감시단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부정불법유통을 근절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참석한 대의원들은 최근 미국에서 BSE 발병우가 확인된 것에 수입불허 입장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농림부 이재용과장은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품질차별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홍수출하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등급별 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안전 고급육 생산만이 한우산업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지난 16일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전국 시·도 방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4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했다.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검역원 방역관련 담당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05/0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주요 추진실적 평가 및 소브루셀라병 등 현안질병과 돼지와 송아지설사병 등에 대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특히 검역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주변국가의 발생동향 등 여러 자료를 제공, 일선 현장에서 구제역 예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강문일 원장은 “지난 11월부터 올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모든 방역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단, 영천지역 참여농가 인증현판식 가져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단(단장 여정수)은 지난 8일 영천축협 회의실 및 농장 현장에서 클러스터 참여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농가 현판 및 개체기록부 교부 행사를 가졌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경북한우산업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학·연·관(경북도, 영남대, 경북축협운영협의회, 한우협회 경북도지회 등) 합동으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100% 신뢰할 수 있는 한우고기 생산을 목표로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참여농가 170호, 1만4472마리를 대상으로 전 마리수 채혈을 완료해 소 부루세라병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귀표 장착과 DNA Typing, 개체기록부 작성 등 생산이력 추적체계 갖춘 영천지역에서 최종 확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현판 및 개체기록부(문서함)를 교부하게 됐다.

특히 사업 참여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영천축협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를 되새기고 더 많은 축산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인증하는 현판을 현지농가에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여정수 사업단장은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농림부의 국가 농업정책 사업으로 선정돼 출범하게 됐다”며 “경북지역 4만여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는 물론 경북한우가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경북 한우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 수정란 생산·이식센터 개소

한우와 젖소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소 수정란 생산·이식센터가 경북 경산에 문을 열었다.

경북도는 9일 경산지역에 4억5000여만원을 들여 경북수정란이식센터를 건립, 오는 1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우수한 한우와 혈통이 등록된 젖소암소를 선발, 한우암소에 호르몬을 투여해 난자를 과배란한 뒤 한우 수컷의 정액을 인공수정,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전 꺼내 이식우에 이식, 수태시켜 고능력 한우를 생산하게 된다.

센터측은 우수한 유전능력을 갖춘 한우나 육질1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의 어미소를 역추적, 선발하고 DNA와 초음파 등을 활용해 수정란의 상태와 미세난포란의 크기, 개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과 호르몬 처리기술 개발 등 체내수정란이식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경북수정란이식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한우와 젖소의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결수정란의 기술보급 연구를 계속, 전국으로 수정란을 공급해 가축 개량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가 ‘품질관리 시스템’ 본격기동

젖소 사육농가 HACCP 시범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한미FTA 등 해외 개방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

품질 차별화축산물 안전성 확립 시스템 보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젓소 사육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관리시스템(HACCP)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2월 축산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중심으로 HACCP추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한편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과 합동으로 경기 포천(3월2일~3일)경남의령(3월9일~10일), 경북구미(3월16일~17일)에서 순회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관리시스템은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예방 또는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표준시스템으로 선진국의 경우 HACCP 개념하의 우수농장 관리기준(GAP)에 의하여 축산물의 위생품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과 사업내용으로는 △젓소 사육농가 HACCP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으로 농장단계에서의 HACCP제도 조기 정착 △국가단위 인증사업에 활용한 젓소 사육농가에 HACCP 시스템을 보급 등 국내산 우유·유제품의 위생품질 향상 및 우유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산 유제품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광우병발생 美쇠고기 원점에서 수입협상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협상도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사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미 간에 정치적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위원장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100%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홍위원장은 또 “미국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경우 나이와 출생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미비해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미국 정부의 말만 믿지 말고 과학적 근거로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위원장은 미국 내에서도 광우병 안전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살코기)는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말만 믿고 수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위원장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는 불량식품으로 국민 건강을 고려한 예방적 수입금지 원칙에 입각해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위원장은 “광우병은 수년 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데 미국의 광우병 표본검사 비율은 전체 도축마릿수 대비 1%도 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는 잠재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위원장은 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실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라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물위생과“고품질 안심축산물 인프라 구축”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은 품질과 안전성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육성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HACCP 운영 등으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이 강조한 축산물위생 정책의 바로미터다.

전임 석희진 과장이 추진해온 축산물브랜드와 HACCP를 정착시킴으로써 축산물위생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올 축산물브랜드 정책 부문에 있어서도 30개를 추가로 선정, 총 80여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우·돼지에서 육우·육계까지 인증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윤 과장은 LPC(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도축장 HACCP 운용수준과 경영상태를 평가한 후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양돈 계열화사업 및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면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임도 밝힌다.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2개이상 통폐합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판매시 이용 도축장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위생수준이 우

수한 도축장을 확인 후 구매토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은 위생수준에 상응하는 도축수수료 징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은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와 지역단위의 연계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음식점)을 단계적으로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돼지의 경우도 오는 2007년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되, 돈군 식별번호 부여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사육단계에서 농가 교육 및 사료·동물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올해부터 브랜드참여농가와 친환경축산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HACCP를 시범 적용하고, HACCP 적용 희망 농가에 컨설팅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사료내 중금속, 살모넬라균,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에서도 미생물 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의 경우는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닭·오리고기에 대한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며, 사육단계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전단계 HACCP 도입에 따른 가칭 사단법인 한국축산물HACCP기준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7년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

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되되, 이에 앞서 올해는 농협·생산자단체와 협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자율적용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축산 3대현안 해결 '사활'

한미 FTA, 농지법 개정,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존치 등 축산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관련단체의 의지가 결연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같이 선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또 올해로 임기만료된 회장에 현 남호경 한우협회장을 재추대하고, 축산관련단체들이 일사분란하게 축산 현안에 대응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같이했다.

축단협은 특히 한미 FTA와 관련, 축산관련 단체 중 최소 3~4개 단체가 '한미 FTA 농축수산물 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해 활동기로 함으로써 축산단체가 소외되지 않은 가운데 축산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장에 재추대된 남호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축산현안들을 앞두고 다시 축단협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 축산업계가 모두가 의지를 다지고 힘을 모아 한미 FTA를 저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회원단체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말

하고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원 개선에서는 현 부회장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양돈협회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데 이어 경험이 풍부한 축산업계원로를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키로 하고, 추가 선임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에는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 ▲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선임했다.

한우고급육 출현율 대폭 향상

농기들의 고급육 생산 노력으로 인해 지난 해 한우고급육 출현율이 크게 향상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평균 거세우 1등급 출현율은 70.3%로 전년 대비 10.2%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나란히 77.5%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고, 전남이 74.3%, 경남이 72.6%를 기록했다.

거세우와 암소, 수소를 모두 아우르는 전국평균 1등급 출현율은 47.9%로 전년보다 12% 높아졌으며 제주 71.1%, 경남 56.2%, 전남 54.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인증받은 13개 브랜드의 1등급 출현율 전체 평균은 79.3%로 나타났고, 이중 상위 3개 브랜드 경영체는 평균 86.3%의 높은 고급육 출현율을 기록했다.

광우병소나이 '관심집중'

"적어도 10살 이상" 로이터통신 치아감별결과 보도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적어도 10살은

된다는 미국 측 확인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워싱턴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관계자는 16일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의 치아감별 결과 적어도 10살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혈통이나 문신 등 식별 가능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물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1998년 4월 이전에 감염소가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17일 “미국 측으로부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감염소 연령 검사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광우병 감염소가 1998년 3월 이전 출생했다면 미국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 재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대신 이달 19일로 예정인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은 미국 공식통보 이후로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美 쇠고기 BSE 재발생 한우 차별화 기회 삼아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봉재 팀장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확정된 가운데 미국에서 또다시 BSE(소해면상뇌증 일명·광우병) 양성우가 발견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 미국산 수입소가 곧 있으면 우리 시장에 밀고 들어오게 된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수입재개 전면 백지화를 외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강한 압력 앞에서 농가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보인다.

지금 우리 농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우자조금은 바로 농가들의 이런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한우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지금의 위기를 수입육과 철저히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소비자 호응’

한우전문 판매점을 인증하는 한우판매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림부 이상수 서기관, 농협중앙회 박치봉 부장, 한우협회 장기선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추진방법과 절차 및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와 ‘한우고기 소비량 조사체계 수립 및 홍보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한우자조금 중점 사업과제 중 하나인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관련 연구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연구를 담당한 GMD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5백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87.3%가 판매점의 한우고기를 신뢰하지 못해 한우판매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신뢰성 있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시 한우판매점

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84.4%가 '예'라고 답해 인증제 도입이 전체 한우판매량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전문판매점들도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우전문판매점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7%가 도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판매점은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TV등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판매점에 메리트를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간보고에선 세계 각국 및 국내의 다양한 인증제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한우판매점 인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틀은 한우협회, 농협, 농림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는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며, 차후 보완을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소식

호주, 젓소줄기세포 증식성공 주장

퍼펙트젓소만들기 유전학적 돌파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련의 호주 과학자들이 젓소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증식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발견함에 따라, 퍼펙트젓소를 만들기 위한 유전학적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호주의 낙농 CRC(협동연구센터)는 이번주, 젓소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함에 따라, 앞으로 호주 낙농업계가 젓소의 유전학적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폴 버마박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의 배아당 만개 정도의 줄기세포 분리가 가능한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하나의 배아에서 20만개 이상의 줄기세포를 분리해냈다"고 밝혔다.

버마박사는 "우리는 줄기세포라인을 통해 젓소줄기세포를 증식하는데 성공했다. 이전에 줄기세포라인은 주로 사람, 쥐, 영장류를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젓소에 대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멀지않은 장래에, 줄기세포를 통해 유전학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가축생산이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CRC측은, 연구팀이 새로운 기술의 보호를 위해 곧 국제특허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기세포는 낙농업계에서 젓소 유방의 건강과 단위우유생산을 향상시키고, 또한,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난 20년간 초산월령 빨라지고

분만간격 길어져

지난 20년간 미국 젖소들은 초산월령이 빨라지고 분만 간격은 길어졌으며 도태월령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성 가축개량육종 실험실이 지난 1979년 이래 미국내 젖소검정사업에 참여한 2천만건 이상의 검정기록을 분석한 결과 홀스타인 젖소는 초산월령이 지난 '80년에 27.9개월령에서 '04년에는 25.6개월령으로 단축되었으며, 초산우의 분만간격은 394.2일에서 415.2일로 늘어났고, 전체 검정참여우의 평균 분만월령은 51.8개월령에서 44.6개월령으로 도태월령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종별로는 저지종이 초산월령이 가장 빨라 '80년 26.5개월령에서 '04년 24.1개월령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만간격도 종전 385.9일에서 398.5일로 비교적 번식간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6만두 젖소도태 자조금 kg당 10원 거출

미국 최대 낙농가단체인 '미국 낙농가 연맹'은 우유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중 젖소 6만두를 도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낙농가 생산 우유 100파운드당 50센트(10원 70전/kg)의 자조금을 거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내 우유소비는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이를 상회하여 우유가격이 하향추세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05년 기준 907만두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어 우유가격 안정을 위해 9백만두 수준의 젖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내에는 '함께 협동하기(CWT)'라는 생산자 단체 자조금으로 지난 '03년 이래 3차례에 걸쳐 젖소도태 자조금을 조성 지원한 바 있으며 잉여 우유 소진을

위해 대외수출자금등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최종 확인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BSE(광우병)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부는 14일 오전 미국 당국으로부터 알라바마주에서 사육된 소가 BSE 양성 반응을 보여 감염소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소의 나이는 미 당국의 치아감별 결과 1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나이와 출생지 등 구체적인 이력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감염소가 미국의 육골분 사료급여 금지 조치가 시행된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1월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의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검역 수준으로 광우병 추적 못해 심각

- 광우병, 쇠고기산업과 유착된 미국 정부 문제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검역 시스템상으로는 그 위험성의 정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미국 현지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 '소비자 조합' (Consumers Union) 진 할로란 식품 정책국장은 현재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미국 정부의 말대로 10살이 넘는 소인지 밝히는 건 '9년 전 동물 사료 금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10살 이하라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사료 금지 조치 이후에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더 광범위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 할로란 국장은 "미국은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열악"하다면서, 현재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주인은 1년만 소유한 상태라, 이 소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졌나 전혀 알 수 없고 치아 상태로 소의 나이를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데 반해 미국은 1%의 소, 즉 100마리 중 1마리 정도만 광우병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이 이렇게 원시적인 이유에 대해 진 할로란 국장은 "미국의 쇠고기 산업이 대규모의 전면적 방역 시스템을 원하지 않고 소규모의 샘플 조사만을 원하는데, 미국 정부 역시 이들 산업과 유착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 할로란 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20개월 미만이라고 모두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현재 기술 수준으로 광우병 양성 반응을 확인하는 게 20개월 이상의 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꼭 안전하지 않은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유럽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산의 경우 조사 샘플이 너무 적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 할로란 국장은 "동물사료를 돼지나 닭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돼지나 닭의 성분을 소에게 먹이는 일"이 미국에서 있다며 동물성 사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각 나라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중앙농회의의회 우유수급 지원요청

일본의 우유수급지원을 총괄하는 협동조합 연합체인 중앙농회의는 '06년도 축산물 가격·관련 대책을 심의중인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본격적인 지원을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우유수급제도의 근간인 가공 원료유의 한도 수량에 대해서는 최근 원유수급을 감안 우유생산 기반 유지, 생산자 단체에 의한 수급 대책의 배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가공 원료유의 생산자 보급금 단가도 현행 유지를 기본으로 적절히 결정해 현재 지원농가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원유 수급 대책으로는 액상 유제품이나 발효유, 치즈전용의 원유 공급을 장려하는 사업과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겨울철 생산 억제를 지원하는 대책을 계속 실시하는 것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교섭시 탈지분유, 버터의 관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국경조치 견지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서 23번째 광우병 감염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홋카이도(北海道) 나카가와(中川)에서 사육되던 소 한마리가 광우병(BS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내에서 광우병에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은 23번째다.

문제의 소는 5년생 홀스타인종으로서 이날 도축 과정에서 광우병 의심 판정을받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말했다.

당국은 광우병 감염 소를 폐기 처분하는 한편 감염경로 파악 및 추가 감염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